

변증(辨證) - 표리,한열,허실,음양(表裏,寒熱,虛實,陰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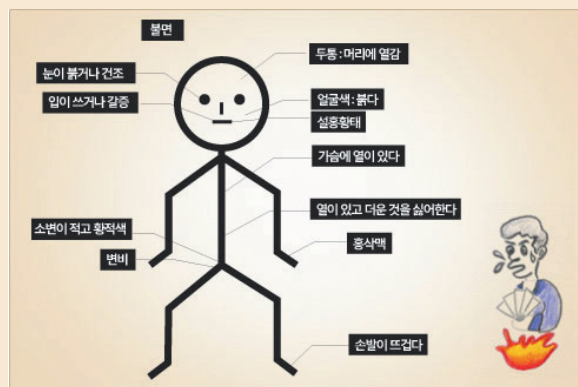
백 윤 희 한의사

속이 더부룩해서, 감기에 걸려서 혹은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 가게 되면, 그 간단한 증상에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만가지 질문을 하고, 맥도 짚고 혀도 살피고 배도 꼭꼭 눌러보고 도대체 이진 뭐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기진 않던가요. 허리가 아픈데 소변이 잘 나오는가는 왜 물어보는지, 머리가 아픈데 소화가 잘 되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병원에서 관절염, 오십견, 백내장 등등의 병명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으러 갔더니 왜 엉뚱하게 찬물을 좋아하는지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지, 잠은 잘 자는지, 땀은 흘리는지, 변은 잘 보는지 같은 걸 캐물을까 불편한 심정이셨던 분들도 계신진 않는지요. 이것은 한의학적으로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변증(辨證)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해 보이더라도 가급적 모든 상태를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치료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변증(辨證)의 방법은 육경변증(六經辨證), 장부변증(臟腑辨證) 뿐 아니라, 온병(溫病) 진단에 사용하는 삼초변증(三焦辨證)이나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辨證) 등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팔강변증(八綱辨證)이 여러 임상하시는 분들에 의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팔강(八綱)은 표(表), 리(裏), 한(寒), 열(熱), 허(虛), 실(實), 음(陰), 양(陽)을 일컫는데, 가령 감기(상한, 傷寒)에 걸려 으슬으슬 춥고 열나고 하는 증상은 표증(表證)에 해당해서 땀을 내서 치료하지만, 사기(邪氣)가 좀더 안으로 진행하여 열이 펄펄 끓고, 갈증이 심하고, 소화도 안 되고, 대변도 안 나오고 하면 이는 리증(裏證)으로 전변된 것으로, 설사시키거나 청열(淸熱)시키는 등의 치법(治法)을 쓰게 됩니다. 감기라는 동일한 질병에도 증상에 따라 치료법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또 같은 비염이라도 누런 콧물이나 오고 부비동에 늘 염증이 생기고 평소에 눈이 잘 충혈되거나 편도가 잘 붓고, 찬물을 좋아하고 소변색도 노란편이고 변비도 있고 등등의 증상이면 이것은 열증(熱證)에 해당하기 때문에 열(熱)과 염증, 노폐물을 제거하는 치료가 주가 될 것이고, 하얗고 맑은 콧물이 나오고 평소에 추위도 많이 타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고, 소변색도 맑은 편이고 등등의 증상이면 이것은 한증(寒證)에 속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우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신진대사의 균형을 바로 잡는 쪽으로 치료 방향을 잡게 됩니다.

정기(正氣)가 허약해서 질환이 생기는 것을 허증(虛證)이라 하



〈 화열증(火熱證) 〉

고, 사기(邪氣)가 왕성해서 질환이 생기는 것을 실증(實證)이라 하는데, 같은 허리가 아픈 증상이라도 노인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신기(腎氣)도 허해지고 허리 근육이나 뼈, 주위 연부조직이 약해져 생기는 요통은 허증(虛證)에 해당하고, 신우신염처럼 세균감염에 의해 허리가 아픈 것은 실증(實證)에 해당합니다. 또 통증이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며 아프면 담음요통, 한곳에 고정되어 찌르듯이 아프며 밤에 더 심하면 어혈요통으로 보는데(물론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안 되며 다른 제반 담음이나 어혈 증상을 동반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체내 병리산물인 담음(痰飲)이나 어혈(瘀血)이 혈맥을 막아 발생하는 요통도 실증(實證)에 해당합니다. 허증(虛證)은 보(補)해서 치료해야 하고, 실증(實證)은 사(瀉), 즉 사기(邪氣)를 제거하여 치료해야 하는데, 막연히 요즘 피곤하고 허리도 많이 아프니 몸을 보(補)해야겠다고 진단 없이 함부로 보약(補藥)이나 보양음식을 드시면 증상이 변증(辨證)에 어긋날 경우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허약한 어린이나 노인 분들의 감기에는 땀내고 설사시키고 청열(淸熱)시키는 등의 사법(瀉法)보다는 보법(補法)을 써 면역력(정기, 正氣)을 향상시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즉 변증(辨證)이 얼마나 정확한지가 이후 치료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술한 것 중 표(表), 열(熱), 실증(實證)은 양증(陽)에 속하고, 리(裏), 한(寒), 허증(虛證)은 음증(陰證)에 속하여 팔강(八綱)이 됩니다.

백윤희 위원 : sunnylotus@hanmail.net